

## 2. 전시회 10년 총정리

# 되돌아보는 지난 전시회 10년 발자취

2천년 대 최첨단산업인 광학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기술교류를 통한 신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광학기기 및 관련부품의 수출증진과 내수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 1989년 시작된 전시회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그간의 10년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 카메라를 중심, 국내 수요 겨냥한 전시회로 출발

국내 처음 광학관련 전시회가 열린 것은 지난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천년 대 최첨단산업인 광학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기술교류를 통한 신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광학기기 및 관련부품의 수출증진과 내수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한국종합전시장(이하 COEX)이 주최하고 한국광학기기협회와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전시회가 처음 열리기까지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필요로 했다. COEX는 87년 후반부터 2년 동안 국내광학기술 및 시장동향분석을 통해 전시회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찾고 해외광학기기업체 및 국내광학 관련업체, 수입업체 등을 조사, 본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3회에 걸쳐 참가업체들과 전시회의 세부사항 등의 설명회를 갖고, 관련 후원기관과 끊임없는 업무협조를 해 온 결과였다.

이렇게 탄생된 '제 1회 한국국제광학기기전시회'는 지난 1989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COEX전시장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국내 광학

기기제조업체를 포함해 6개국에서 모두 46개 업체가 참여해 각종 렌즈, 쌍안경, 카메라, 현미경, 레이저, 광학측정기, 안경 등을 선보였다. 1회 대회의 특징이라면 카메라업체들의 대거 참여로 카메라를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를 겨냥한 전시회였다는 것이다. 24개국에서 3백여명의 바이어가 내방하고, 총 2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1990년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제 2회 한국 국제 광학기기 및 사진·영상 기자대전(Optics Korea '90)'은 전년도에 비해 안경업체들이 대거 불참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적은 40여 개의 업체가 참여했지만 질적으로 발전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89년과 달라진 점이 라면 카메라를 비롯해 플래시, 필름, 앨범, 화공약품, 광학시설재 등 전시품목의 다양화를 기했다는 점이다. 카메라의 경우 지난해 외국 기술도입 제품위주에서 90년도에는 국내 개발 자체 브랜드제품이 많이 전시됐다. 또한 이 기간중 광학산업 세미나가 처음 개최되어 전시회의 의미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 91년 이후 수출시장 겨냥한 전시회로 발전

91년과 92년의 3, 4회 전시회의 특징은 국제적인 전시회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 91년부터는 안경분야를 완전 분리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Optics Korea' 라는 명칭이 외국의 관련 전시회(Photokina, PMA)와 성격상 유사함에도 정밀 광학기기나 안경전시회와 명칭이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돼 사진영상기기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Photo Show Seoul' 로 변경했다.

출품품목도 다양해져 카메라만 보더라도 기존에 기술도입으로 국내 조립한 사실상의 외국제품 위주에서 다양한 국내 기종이 대거 출품돼 기종의 다양화·고급화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을 겨냥한 전시회로 발전해왔다는 평을 받았다.

이 시기에 컬러사진 현상기는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활기를 띠기 시작한 반면 카메라생산 업계는 내수시장의 둔화로 업계의 재편이 이뤄지면서 92년 전시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3년 만에 부활된 뜻깊은 96년 전시회 97년 APS시스템과 디지털카메라 강세

'96서울국제광학 및 사진·영상기자재전의 개최는 그 어느 때보다 광학업체들의 새로운 도약과 활기를 찾게 해준 전시회로 기억될 것이다. 92년을 끝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3년 간 광학기기 전시회가 없다가 다시 부활되는 자리였기 때문. 그간 광학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발전이 늦었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가운데 국내 유일한 광학관련 전시회마저 열리지 않게 되자 많은 우려의 소리로 낡았었다. 하지만 제 5회 전시회를 통해 광학산업과 기

술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전시회가 정례화 되고 개최규모가 확대되는 계기 마련과 더불어 국내 광학산업 발전에 좋은 길잡이가 됐다는 평을 받았다.

96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150여 개 부수에 8개국 48개사가 참여했고, 총 3만 여명이 방문한 전시회에서는 각종 35mm 스틸카메라와 광학 관련 제품들이 출시됐다. 또한 사진현상·인화기를 비롯한 각종 사진기자재 업체들은 잠재 수요자 발굴에 성공,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97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삼성동 전시장 3층 대서양관에서 개최된 제 6회 전시회는 7개국 총 52개사가 전시회에 출품, 6백억 원의 상담 건수중 1백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1천 명에 달하는 해외바이어의 방문으로 성황을 이뤘다.

제 6회 전시회의 특징은 APS시스템과 디지털 카메라 및 관련광학기기, 사진 기자재 등 사진·영상 분야의 제품들이 출품돼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 99년 수입선다변화 완전해제로 일본 카메라의 각축장으로 변모 디지털이미징 제품의 선풍적 인기

사진영상의 해이기도 했던 제 7회 전시회는 98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렸는데, 이때는 IMF라는 위기상황과 맞물려 많은 광학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IMF로 인해 전시회가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주위의 우려도 낡았으나, 예상을 뒤집고 7개국 5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전년도 전시회가 신사진 시스템인 APS카메라가 주를 이뤘던 반면, 이 해에는 기존의 SLR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가 전시회를 주도했다.

64여 개 업체들이 참가한 제 8회 전시회에도

〈국내 전시회 현황〉

	기간 및 장소	명칭	참가업체 (개사)	참가규모 (부스/m <sup>2</sup> )	참관객 (명)
1	1989. 11. 2 ~ 11. 6 COEX	'89 한국국제 광학기전	46	157/1,413	21,010
2	1990. 9. 21 ~ 9. 25 COEX	'90 한국 국제 광학기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	40	187/1,683	24,731
3	1991. 10. 31 ~ 11. 4 COEX	'91 한국 국제 광학기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	40	107/963	27,051
4	1992. 5. 2 ~ 5. 5 COEX	'92 한국 국제 광학기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	20	44/396	23,708
5	1996. 5. 9 ~ 5. 12 COEX	'96 국제 광학기전시회	48	156/1,404	33,000
6	1997. 5. 9 ~ 5. 18 COEX	'97 한국 국제 광학기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	52	174/1,566	25,233
7	1998. 5. 22 ~ 5. 16 COEX	'98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	50	157/1,413	32,123
8	1999. 4. 29 ~ 5. 2 COEX	'99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	64	223/2,007	30,000
9	200. 5. 14 ~ 5. 17 COEX	2000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	74	243/2,187	30,200

디지털카메라의 선풍은 이어졌고 카메라뿐만 아니라 프린터, 스캐너, 현상인화기 등 디지털 이미징처리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많이 선보여 인쇄와 인화분야의 디지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름인화기와 사진현상기의 디지털화도 눈에 띄는 변화로 아그파코리아와 우성포토교역, 한국후지필름 등은 디지털인화기와 복합현상인화기 등을 전시했고, 디지털 영상처리시스템 업체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던 전시회였다.

또한 99년 6월 30일 수입선 다변화 완전해제를 두달여 앞두고 열렸던 제 8회 전시회는 외국

카메라업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일본 카메라 최신행 모델의 각축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 9회 전시회는 그 어느 해보다 광학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국내 유일의 사진 및 광학 관련 전시회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총 74개 업체가 참여한 제 9회 전시회는 전년에 이어 역시 각종 디지털 제품들의 강세가 돋보였다.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해 디지털 현상기 등 세계 각국의 첨단 디지털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